



(07326)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
Three IFC 41층

담당자 : 권혜령 선임 리테일마케팅실 Tel : 02-2167-8224 E-mail : hyeryoung.kwon@kbfg.com

문서번호 : 연금WM2025-00381

시행일자 : 2025. 05. 13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참조 : 업무 담당자

제목 :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아래와 같이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대상펀드 및 변경 내용

펀드명	변경내용		변경문서	효력발생일
	정기갱신	요약		
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-	투자신탁전환 처리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) →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	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	2025.05.13

나. 효력발생일 : 2025년 05월 13일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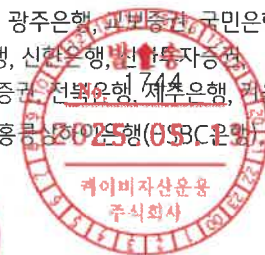
다. 수시공시 여부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
동법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

* 첨부파일 : 신탁계약서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. 끝.

수신처 : BNK경남은행, DB증권, iM증권(구 하이투자증권), KB증권, LS증권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국민은행,
기업은행, 농협은행, 다올투자증권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
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(구 한국포스증권)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키움증권,
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 현대차증권, 흥국증권, 신한은행(USC은행), 흥국증권

연금WM본부장





(07326)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
Three IFC 41층

담당자 : 권혜령 선임 리테일마케팅실 Tel : 02-2167-8224 E-mail : hyeryoung.kwon@kbfg.com

문서번호 : 연금WM2025-00382

시행일자 : 2025. 05. 13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참조 : 업무 담당자

제목 :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문서변경 사전안내 누락 관련 안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5년 5월 13일(화) 아래 펀드의 신탁계약서, 투자설명서 등 사전안내 누락 관련 안내드리오니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해당 펀드

- 펀드명 :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
- 효력발생일 : 2025년 5월 13일(화)

나. 발생 경위 및 사유

- 당사는 해당 펀드 문서 변경 관련하여, 귀 사(행)에 사전 안내를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유에 의해 사전안내가 누락되었습니다.

• 전환형 펀드 환매주기 변경 시, 신탁계약서 제51조의 2 전환처리일도 변경 반영 되었어야 했으나, 전환형 펀드가 일반적이지 않아 해당 조항 변경이 누락되었음. 해당 조항은 환매주기를 재기재하는 부분으로 추후 다른 변경사항과 함께 일괄 반영 예정이었으나, 예탁결제원 요청으로 즉각 반영할 수 밖에 없어 급하게 변경 진행됨.

다. 향후 계획

-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사전안내를 제공하고, 안내 관련 내부 점검 절차 강화하겠음.

수신처 : BNK경남은행, DB증권, iM증권(구 하이투자증권), KB증권, LS증권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다올투자증권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(구 한국포스증권)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 현대차증권, 홍콩상하이은행(HSBC은행), 홍콩증권

연금WM본부장

